

코스피 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약어 :KOSPI)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에 주식에 대한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다.
원래 명칭은 종합주가지수(綜合株價指數)였으나,
2005년 11월 1일부터 현재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
산출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다.
첨단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NASDAQ) 시장을 본떠 만든 것(벤치마크)으로,
유가증권 시장과는 규제 조치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주)코스닥증권시장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코스닥을 만든 것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증시에서 사업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에겐 유가증권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탈락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만을 위한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
증시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나스닥(NASDAQ)은 나스닥 OMX 그룹의 자회사이며 미국의 장외주식거래시장이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의 뉴스 끝에 소개되는 나스닥은
전미증권협회 주식시세자동통보체계(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에 의한 지수 즉, 나스닥 지수의 줄임으로 사용된 것이다
나스닥(NASDAQ)은 나스닥 OMX 그룹의 자회사이며 미국의 장외주식거래시장이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의 뉴스 끝에 소개되는 나스닥은
전미증권협회 주식시세자동통보체계(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에 의
한 지수
즉, 나스닥 지수의 줄임으로 사용된 것이다

나스닥

NASDAQ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첨단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있는 미국의 장외시장.
이 시장은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네스케이프, 야후 등 유명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
다.
거래량을 기준으로 할 때 뉴욕증권거래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이다.
이 시장은 전미증권협회(NASD)가 지난 1971년 설립했다.
세계최초의 전자결제 주식시장으로 모든 시세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일본은 나스닥을 본떠 자스닥시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코스닥 시장을 운영중이다.